

# 「小規模 가톨릭醫療事業의 現況과 發展對策」 方案模索

— 1985.10.18 大田에서 개최 —

지난해 10월 18일 大田에서 개최된 85年度 가을세미나에는 全國가톨릭 醫療機關에서 80余名の 會員이 參加한 가운데 「小規模가톨릭 醫療事業의 現況과 發展對策」을 主題로 다루고 소외돼온 小規模 醫療機關에 눈길을 돌리는 주요한 時間을 가졌다.

午前 10時에 시작된 이날 세미나에서 協會長 金大軫신부는 開會辭에서 『소외돼온 小規模 醫療機關에서 구축사업의 使命感을 가지고 어려움을 體驗하면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醫療從事者로서의 참모습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一線에서 直接 구축사업을 몸으로 배우고 있는 형제들에게 勇氣를 주고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도울 수 있는 方法이 있다면 기꺼이 그일을 같이 해야할 것』이라고 強調했다.

먼저 主題發表에 나선 金重浩신부는 『가톨릭 病院들이 社會變動과 함께 發展해 처음 20~30개 病床에서 시작, 현재는 2백~3백개의 병상수로 成長했으나 初創期の 設立目的 즉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다」는 정신은 成長에 比해 退步했다』고 지적하고 벽지와 都市영세민을 대상으로 1次 診療를 펴고 있는 小規模 醫療機關들이 自體運營이 어려워 恩이나 本당을 찾아다니며 運營資金을 호소하고 있고 特히 醫療陣의 확보는 不可能한 狀態라고 金신부가 現地踏査를 통해서 조사한 그들의 애로를 소개했다. 또한 應急患者나 重患者가 發生할 때는 應援을 청할 2·3次 診療機關이 없다는 슬픈 현상이며 教區內에 큰 病院이 있으나 문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파견 미사 광경

일은 小規模 慈善診療所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 이라면서 이들을 돕기위해 2·3次 診療機關에서 慈善診療의 幅을 넓혀 이들을 받아주는 配慮가 있기를 바란다고 呼訴했다.

이어 첫번째 事例發表에서 전·진·상 약국과 附屬醫院을 통해 서울지역 영세민을 대상으로 診療事業을 펴고 있는 전·진·상 가정복지센터의 유송자씨는 藥局서 衛生教育, 附屬醫院에 患者의 뒤, 등록患者들에 특별할인조제를 하고 가정복지센터에서는 家庭訪問 및 相談 그리고 養父母 결연 獎學事業까지 地域社會問題도 함께 해나가고 있다고 說明했다. 그러나 2次 診療를 위해 저렴한 醫療수가의 病院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애로점

이라고 呼訴했다.

두번째 事例發表에서 강릉 갈바리의원의 메리·트레시수녀는 가난한 영세민을 위한 外來診療를 하면서 小規模 入院施設에서는 무의탁 老人과 臨終者들을 돕고 있으며 멀리 杆城·巨津까지 나가 患者를 治療해주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불우患者를 돌보는데 힘이 너무 부족하다고 안타까운 狀況을 설명했다.

세번째 事例發表에서 平昌마지리 保健診療所의 우·로사미스띠까 수녀는 藥局하나 없는 벽지에서 診療所만이 唯一한 醫療機關이기에 住民들의 信賴와 호응이 대단하기 때문에 무거운 責任을 느낀다면서 子女教育, 家庭問題등 農村生活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가까운 이웃으로 認定받는 것이 보람이라고 밝힌 마스띠까수녀는 그러나 應急患者가 發生時 夜間에는 車輛이 두절되어 不便을 겪고 있다고 說明하면서 가난한 患者들은 7백원씩 받는 저렴한 진료비도 힘겨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같이 3개 醫院·診療所의 事例發表에서 드러난 問題點은 2次診療를 위해 저렴한 의료수가의 病院을 찾는 일, 또한 병든자·老人·임종자들의 딱한 처지를 보고도 도와줄 길이 없어 외면해 버릴 수 밖에 없는 뼈아픈 입장 그리고 얼마안되는 診療費가 없어 治療를 포기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아픔등을 들었다.

오후에는 事務總長 朴龍輝교수 司會로 계속된 綜合討議에서 영세환자가 必要한 診療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돕는 方策을 討議했는데 現在 全國의 크고 작은 50여개의 가톨릭 醫療機關이 都市 저소득층과 醫療施設이 취약한 벽지에서 無料診療와 診療費 감면등 나름대로의 慈善診療活動을



사례 발표(강릉 갈바리의원)

펴고 있으나 버림받고 헐벗은 사람들에 대한 醫療需要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상을 설명했다. 이러한 現實에서 앞으로 1次診療機關과 2·3次診療機關이 서로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며 協力하여 2·3次診療가 必要한 患者에 대한 慈善診療의 幅을 보다 많이 넓혀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적어도 돈이 없어 병들어 죽어가는 患者들이 방치되는 일이나 1次診療施設밖에 없는 수많은 지역에서 병고에 신음하며 또는 죽어가는 일이 있다면 教會醫療事業을 반성하고 再考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本協會에 小規模診療事業의 對策方向을 審議하는 研究委員會를 두고 모든 가톨릭 醫療機關이 協力하여 이 問題를 풀어나가는 方策을 모색하여 86年 定期總會에서 決議文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